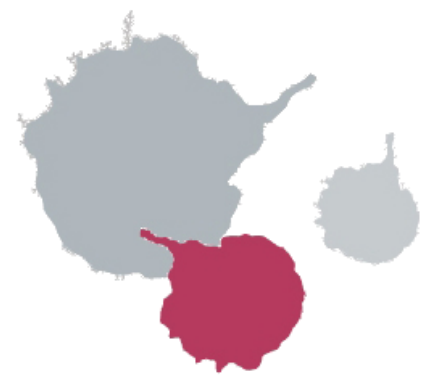


Monthly Report (March)

Sri-Lanka 9th batch
김나래, 민광필, 선영석, 윤도희



Contents

- 단원 소개
- 3월의 일정
- 현지 기관 소개
- 주요 활동
- 총 평

윤도희(두희)

- ☞ 특이사항
 - * 6시10분 알람없이 기상하기
 - * 와나감(안녕) 외치기
 - * Kallar 아이들의 H.O.T.
- ☞ 취미
 - * 거실쓸기, 쓰레기버리기



민광필(필)

- ☞ 특이사항
 - * 마실물 채우기
 - * 거실에서 그림 그리다 잠들기
- ☞ 취미
 - * 바디 관리하기
 - * 사롱(전통의상)입기



선영석(선)

- ☞ 특이사항
 - * 예수 인마이 하트
 - * 남의 말 흘려듣기
 - * 남 따라하기
- ☞ 취미
 - * 다이어트하는 사람 견제하기
 - * 못 알아듣고 '사리사리'(알았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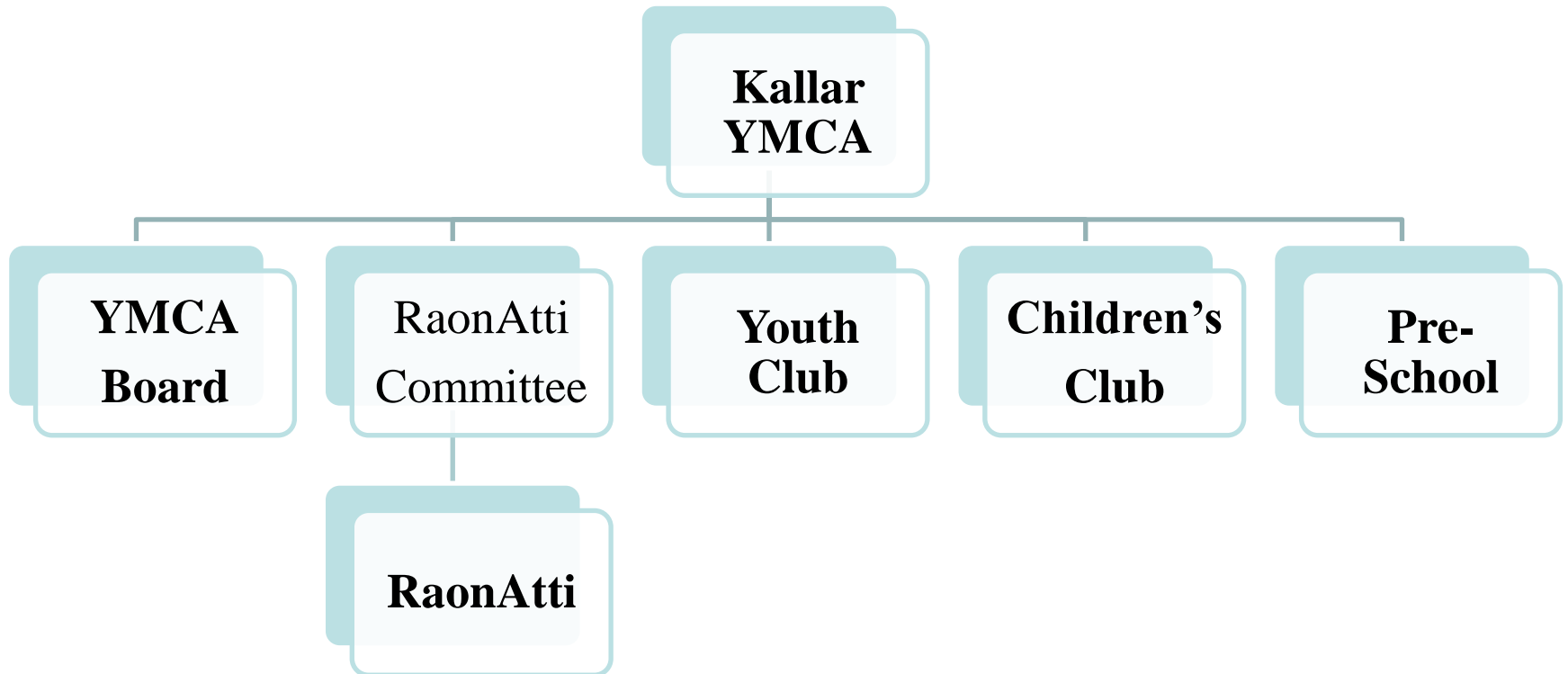
김나래(나레이)

- ☞ 특이사항
 - * 지역 주민과 타밀어로 대화하기
 - * 내 안에 신있다(에큐메니컬)
- ☞ 취미
 - * 지켜라(이웃집 개) 밥주기
 - * 잠자기 그리고 안 잔척하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	4	5	6	7	8	9
				스리랑카도착	NCY-SL 오리엔테이션	
10	11	12	13	14	15	16
콜롬보 탐방	칼라(Kallar)도착	· 칼라YMCA OT · 집 대청소	· 타밀어 수업 · 집 대청소	· 타밀어 수업 · 신부님과 만남 · 집 대청소	· 타밀어 수업	· Kalmunai YMCA 쇼핑센터 개관식 ·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사장 미팅
17	18	19	20	21	22	23
· 현지 교회 방문 · Kallar 해변	· 타밀어 수업 · 스리랑카 요리교실	· 타밀어 수업 · 스리랑카 요리교실	· 타밀어 수업 · 스리랑카 요리교실 · YMCA 환경미화	· 현지 성당 방문 · 스리랑카 요리교실 · 전통의상 체험	· 지역 활동가 만남 -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 커미티 회의	· 재래시장 탐방 · 힌두 행사 참여
24	25	26	27	28	29	30
Kalmunai 탐방	스리랑카 요리교실	Batticaloa 탐방	· 타밀어 수업 · 스리랑카 요리교실 · 저녁식사에 초대 (코디네이터)	· Thuraielavanai YMCA 사무총장 미팅 · 스리랑카 요리교실	· 스리랑카 요리교실 · 크리켓 경기 관람 (Kallar vs Kalmunai)	· 싸이클링 (Kallar-Kalmunai)
31						
· 점심식사에 초대받음 (커미티 멤버) · 부활절 행사 참여						

Kallar YMCA 조직도



함께 하는 사람들



**니랑가
(Niranga)**

- NCY-SL(전국연맹)
-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저스틴
(Justin)**

- 포크하이스쿨 관리
- 라온아띠 커뮤니티멤버



**존
(John)**

- 칼라 YMCA 사무총장
-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코그랄라지
(Kogularaj)**

- 칼라 YMCA 이사장
- 라온아띠 커미티의장
- 타밀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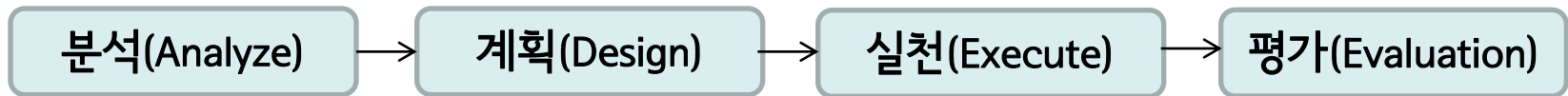
**아난티
(Ananthi)**

- 칼라 YMCA 이사
- 라온아띠 커뮤니티멤버
- 요리교실 선생님

스리랑카 YMCA 전국연맹(NCY-SL) 오리엔테이션

- 라온아띠 9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기대 확인
 - 1) 상호 학습(Mutual Learning)
 - 2) 사회통합 과정의 이해(Learning way of reconciliation)
 - 3) 같은 아시아권에서 다른 지역사회와 만나기(Meet other community in Asia)
 - 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배우기(Learn to live together)
 - 5) 지속 가능한 개발 추구(Continuous Development)

- 활동 실행 과정 점검



- **Golden Rule**

“ 라온아띠 커미티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Always go through RaonAtti Committee)”

-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community)
 - 1) 제안을 통한 합의 도출(Propose to reach agreement)
 - 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In difficulties)
 - 글로 표현(Write), E-mail 발송, 천천히 말하기(Speak slowly), 재구성(Paraphrasing)
 - 3) 갈등상황에서 평정심 유지(Keep meditation on any conflict)
 - 4)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적 불평이 아닌 이성적인 표현하기(Comment, not complain)

NCY-SL 연맹 오리엔테이션 Review



국내에서의 전체교육에서 국제자원활동과 아시아,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 배웠고, 울산YMCA에서 실제로 지역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였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시차적응 가운데서도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단원간의 공통적인 활동 목적을 정립하고,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와 대처방식에 대해 '상황 별 토의'로 공통된 기준을 확립하였다. Kallar라는 지역에서 5개월 동안 살아갈 우리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활동에 대해 다짐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하였다.

타밀어 수업 (Tamil Language Class)



■ 타밀어 수업

스리랑카는 싱할라어(싱할라족 또는 타밀족), 타밀어(타밀족), 영어를 국어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 훈련 기간 동안 울산 YMCA에서 언어수업으로 싱할라어를 배웠다. 그러나 타밀지역인 Kallar 주민들은 싱할라어가 아닌 타밀어를 사용한다. 칼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타밀어를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Kallar YMCA에서도 타밀어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주민들과 관계형성에 필수적인 수단인 현지어(타밀어) 교육을 준비하였다.

■ 활동 내용

Kallar YMCA President와 오전 8시30분 부터 10시까지 수업한다. 수업후, 배운 표현을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하는데 활용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도 되도록 타밀어로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한다. 때론 현지사람들이 우리의 어색한 타밀어를 잘 못알아 듣기도 하지만 타밀어로 현지사람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현지와의 관계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Feedback

익숙하지 않은 타밀어를 들으며 4명이 발음을 일치시키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타밀어 강사이자 Kallar YMCA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코그랄라지’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장 표준적인 Tamil Language를 가르쳐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의사 소통함에 있어서 쓰이는 언어가 직업군별, 연령별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정규수업은 주 3회(월, 수, 금)로 하고 주 2회(화, 목)는 자체 복습과 함께 여러 계층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연습하고 있다.

열정적인 강의와 불타오르는 학구열

스리랑카 요리교실 (Introduction to Sri Lanka food)



요리쌤과 메뉴에 대해 이야기 한 후 함께 만든 음식

■ 스리랑카 요리교실

커미티 멤버이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중책(Y보드멤버, 초등학교 보드멤버, 교회 보드멤버)을 맡고 있는 Ananthy와 함께 점심식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현지 음식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스리랑카 음식은 대부분이 맵고, 짜지만 우리들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편이다.

양념의 양만 잘 조절하면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음식은 지역의 기후와도 연결 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스리랑카 음식과 한국음식의 간을 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 수업 내용

처음에는 일정의 일환으로 전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기후와 음식에 적응한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한 명씩 교대로 Ananthy와 함께 스리랑카 음식문화를 체험하며 팀원들을 위한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 Feedback

Ananthy는 커미티 멤버 이전에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한 가정식 식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식단은 Ananthy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스리랑카 가정식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말에 시간을 할애하여 메뉴와 식재료에 대해 토의 후, 함께 장을 보며, 상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여러 재료에 대해 이해하며 다양한 음식문화에 대해 체험하게 되었다.

YMCA 환경미화 (YMCA Gardening)



- YMCA 환경미화(Gardening)
우기에 대비하여 정문 옆 화단의 식물들을 YMCA건물 옆 음지로 이동시켰다.
- 활동 내용
우기가 되면 식물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정문 화단의 식물들을 뽑았고, 그 중에 작은 것을 골라 YMCA건물 옆 음지에 다시 심었다.
- Feedback
 - 굳이 이 활동을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활동 이후 옮겨 심은 식물들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추후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 YMCA 내부적인 활동과 더불어 Kallar지역 마을공동체의 일 또한 하였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신부님과의 만남 (1st Social Meeting with Priest)

8기까지의 스리랑카 활동지역인 모라투와에서 칼라로 옮겨진 첫 기수인 만큼, 지역사회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만남의 일환으로 칼라 지역의 7개 성당에서 사역하고 계신 엠브로스 신부님을 초대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지역 특징

주민들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힌두와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독교는 소수, 대부분이 힌두)

신부님 추산으로 Kallar지역에는 200가구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령분포로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다수이며, 지역주민들은 해안지방이라는 지리적인 지역조건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술직은 인근도시(Kalmunai)와 대도시, 그리고 해외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 취업인원들은 거액을 지급하여 브로커를 통해 취업하게 된다.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극도의 빈민층과 부유층이 존재하지 않은 중산층이 다수인 지역사회이다.

■ 쓰나미 이후 현재 Kallar의 상황

2004년 12월 29일, 쓰나미로 인해 스리랑카 해안지방 전역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부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현재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거의 복구 되었으나 주민들은 12월이 되면 또 다시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는다고 한다.

■ 내전(Civil war)에 대한 관점

싱할리 정부 주도의 차별정책(구직, 관직진출)으로 발생한 것으로, 민족간의 갈등 이외에도 종교간에도 갈등이 존재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내전이 종결된 상태이며, 타밀 지역 주민들도 역량을 키우면 사회 진출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싱할라족이 다수인 사회에서 타밀족의 정부직 진출(가장 성공적인 직장으로 여김)은 사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예)언어: 타밀 사람들은 방과 후 에 따로 싱할라어를 배우는 학원에 다닌다.

신부님과의 만남 이후 후속활동



5개월 동안 머무는 Kallar를
알기 위한 일환으로
Kallar YMCA를 통한 공식적인
만남 이후 신부님께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성당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예배시간에 참여하며
현지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살아가는
Kallar 주민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역활동가와 만남 (2nd Social Meeting with CBO Member)

칼라 지역에 온 이후, 신부님과의 대화와 이후에 교회로 단원들을 초대해주어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기반을 가진 주민 외, 힌두주민들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을 만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단원들의 요청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을 초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CBO와의 만남으로 알게 된 Kallar의 특성

- 직업군: 어업(지역의 다수를 차지), 목수, 건축업, 공업, 농장, 목축, 낙농 /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
- 2004년 쓰나미로 스리랑카 전 해안 도시가 피해, 특히 동부에 직접적인 피해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복구 중 :
- 지난 30년 동안, 칼라 역시 내전의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는 내전 종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층 교육기회확대, 전문성 배양, 자력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약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

■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란?

- 지역 기반의 자원활동가 조직
- 2004년, 쓰나미 이후 이재민을 위한 숙소 제공 및 재건사업 사업등을 전개 (Micro Credit, 쓰나미 피해지역 재건사업)
- 해외 NGO단체로 부터 선박, 그물, 도구를 지원받은 후 분배

지역활동가와 만남 (2nd Social Meeting with CBO Member)

- Kallar 지역 청년층의 특성
 - 정부직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젊은이가 많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관직 진출의 한계로 취직난을 겪는다. 어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한다.
 - 전문적 기술(목공, 기계) 보유자가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근도시(Kalmunai, Batticaloa)나 대부분 해외(중동 등)로 취업활동을 나가고 있고, 귀국 후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삼륜차(툽툽이) 또는 자영업(작은 잡화점, 식당)에 종사하게 된다.
- Kallar 지역 교육현황
 - 내전 발발 이전부터 교육열이 높았음
 - 내전 이후, 교육열이 낮아졌으나 점차 회복중
 - 고교 졸업 이 후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스리랑카 전역에 취업
 - 제도(6~16세, 10년 의무교육) 고교에서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뉘며 고급과정 수료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졸업 가능,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부의 취업 알선 보장
- CBO가 생각하는 Kallar 지역의 요구(Needs)

현재 스리랑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통한 지식 습득 등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적 지식인 양성이 필요 →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이 보조 된다면 충분히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와 개발이 필요 (도로포장, 선박장, 어선)
 - 주요 산업인 어업 육성을 통한 내수 소비확대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필요

기대하던 바와 같이, 지역활동가와 만남을 통해 지역의 현황과 필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인식과 필요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 할 필요성을 느꼈다.

1차 커미티 미팅 (1st RaonAtti Committee Meeting)



- 회의 안건 승인
 - 식비 증액관련
라온아띠 건의 → 커미티 멤버 협의를 통한 승인
→ 스리랑카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승인 처리
- 라온아띠의 3월 활동에 대한 전체 나눔
 - Committee member
 - * 라온아띠 단원들이 타밀어 배우는데 빠른 것 같다.
이것은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 함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YMCA 내부 인사 외에도 기타 커뮤니티 멤버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짧지 않은 5개월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
 - * 스리랑카식(음식, 손사용) 식단과 전통의상(사리)을 체험하는 등 문화교류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Kallar에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Coordinator
 - *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 * 라온아띠 단원들이 마을 주민과 짧은 기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빠른 타밀어 습득을 하고 있음에 코디네이터로서 자랑스럽다.

1차 커미티 미팅 (1st RaonAtti Committee Meeting)

▪ 라온아띠 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나눔

첫 기수인 만큼 우선 '라온아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커미티 멤버들과 토의하고 싶었다. 우리는 국내 훈련 과정과 출국 전 정리 기간을 통해 개념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만의 라온아띠가 아닌 함께 만들어나가는 국제자원활동에 의의를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라온 아띠의 정체성과 함께, Kallar 지역에서 5개월 동안 머물게 될 우리들의 합의된 목표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Kallar에 도착하기 이전에 짜여진 일정에 대한 활동 사항을 사진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주민들과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3월이 '분석(Analyze)'의 단계라면 4월부터는 함께 만드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과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에 커미티 역시 공감하였고, 서로가 생각하는 활동을 구상하고 정리하여 2차 커미티 미팅에서 '라온아띠' 활동의 의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식적인 활동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도 공유하였다. 커미티 입장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질만한 사항(기후, 음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커미티는 낯선 기후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들을 격려했다.

부활절 축제 (Easter Festival)



Kallar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종교를 들 수 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무교라고 할 경우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음.)

다수의 힌두교인과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칼라에서 부활절은 종교적인 행사 외에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활절 전 1주일은 Holy week로서 기독교를 믿는 주민들은 성당과 교회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특히 금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축제로서 부활절을 기념한다.

스리랑카 요리교실을 함께하는 Mrs. Dilan 가족의 초대를 받아 교회의 부활절 축제에 칼라 YMCA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교회 Youth 멤버들이 준비한 스리랑카 전통 무용과 단체 공연으로 축제가 시작되었다. 축제는 Kallar 지역 교회의 목사님의 부활절 축하 설교로 마무리 되었다.



바티칼로아 탐방



스리랑카에서는 매달 POYA Day라는 휴일이 있다. 불교가 다수인 국가로써 보름달(Full Moon)이 뜨는 날은 공휴일이다.

우리가 Kallar에서 맞는 첫 번째 Poya Day에 주변 지역 탐방을 요청하였고, Mrs. Dillan 가족과 함께 동부지역 대도시 중 하나인 바티칼로아에서 시간을 보냈다.

바티칼로아에서는 동부지역 대성당과 나비 평화 정원을 방문하였다.

Mrs. Dillan의 가족들은 모두 Kallar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가족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알고 있다. Mrs. Dillan은 한국의 부녀회장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Mrs. Dillan 가족과 POYA Day를 함께 보냄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Meatless Friday

육식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비인도적인 공장 식 축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Meatless Monday 운동의 일환으로 Kallar에서도 주1회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Kallar지역의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금요일에는 채식을 한다. 이에 우리는 Meatless Monday 운동을 현지에 맞게 Meatless Friday로 바꿔 실천하기로 하였다.

Meatless Friday는 채식 하는 것 외에 Kallar의 채소 요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또한 우리에게겐 생소한 채소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Kallar 생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고 있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대 청소



Kallar 활동 5개월 동안 우리의 집이 될 곳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집이었다.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4명의 단원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집이었다.

다만 오랫동안 비어 놓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묵은 먼지와 거미줄, 부엌의 바퀴벌레는 제거해야 했다.

Kallar에 도착한 다음 날 부터 하루 3시간씩 3일 동안 거실, 부엌, 화장실, 각자의 방을 청소했다. 모두가 땀 흘려 청소 한 덕에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살 집을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집이라는 애정을 갖게 되었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이 발

35°C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서 생활하다 보니 긴 머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샴푸 값도 줄여 볼 요량으로 현지 미용실에 갔다.

윤도희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원이 이발을 했다. 두 남자 단원의 이발 후 김나래 단원이 자르려 하자 이발사는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스리랑카에서 여성이 머리를 자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이 곳 이발사 또한 처음으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본다고 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Kallar 여성들은 머리가 엉덩이 아래 까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항상 머리를 땀고 다닌다.

스페셜리스트라던 그의 손길에 김나래 단원은 긴장하며 자신의 머리를 맡겼으나 나름 만족스러워 했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스리랑카 옷 입기



현지에 도착하여 남자 단원들은 스리랑카 남성들이 즐겨 입는 “사롱”을 구입했다.
- 광필: 사롱을 처음 입을 때는 덥고 불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밤마다 입을 만큼 친숙한 옷이 되었다.

여자 단원들은 Kallar의 인근도시 (Kalmunai)에서 “사리”를 구입했다. 사리는 생각보다 시원하고 편하다. 그러나 사리가 낯선 우리들에겐 입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

-Kallar 여성들은 평상복에서 출근복까지 광범위하게 사리를 입는다. 그러나 사롱같은 경우 집에서만 입는 실내복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런 사롱의 쓰임에 대해 모르던 때 예를 표하기 위해 남자 단원들은 모두 사롱을 입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Kallar Beach

스리랑카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Kallar에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아 깨끗한 해변이 있다. 5분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멋진 바다와 호수를 만날 수 있다.

Kallar의 몇몇 주민들은 이 바다와 호수에서 물고기나 게, 새우를 잡아 마을 시장에서 팔아 생활한다.

또한 이 곳은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한다.

Kallar의 주민들은 탁 트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곁에서 살고 있다.

- 해변에 앉아 팀원들과 함께 바라보는 Kallar 바다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Kallar에서의 생활 (Life style)

달는나눔, 여는나눔

스리랑카에 도착한 8일 새벽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달는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날의 일정을 돌아보고 서로 느낀 것들을 나누는 '달는 나눔'시간은 활동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단원들간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 날 '달는 나눔'에서 우리가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다음날 아침 코디네이터와 함께 '여는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3월을 마무리하며

- 칼라지역은 라온아띠 스리랑카팀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지역이다. 이에 활동을 하기에 앞서 칼라 community와 칼라YMCA 그리고 단원들간에 라온아띠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했다. 3월 동안 이루어졌던 활동이나 생활 측면에서 우리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함께 느리게 사는 법을 연습 할 수 있었다.

- 3월은 본격적인 라온아띠 활동을 하기에 앞서 스리랑카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먼저 기후에 적응해야 했다. 영하였던 한국과 달리 30도를 웃도는 스리랑카의 날씨에 우리의 생체리듬을 자연스럽게 맞춰 가는 워밍업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같은 쌀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다가왔던 스리랑카 음식에도 적응해야 했다. 같은 식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미료의 사용으로 이곳 음식만의 독특한 향미가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 음식은 우리의 입맛에 아주 잘 맞았고, Ananthy의 요리 교실을 통해 다양한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Kallar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또한 우리에게 적응하는 기간 이었다. Kallar는 스리랑카 안에서도 작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낯설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또한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다른 도시의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눈이 마주치면 우리가 먼저 “와나깜(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한다. 그러면 무표정이던 주민들도 환히 웃으면서 “와나깜”하고 인사해 준다. 아직 공식적인 Kallar주민들과 만난 기회는 없지만 지금까지 만난 주민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태도임을 느낄 수 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인사하기’는 Kallar 주민들과 우리가 서로 스며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3월의 적응 기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4개월도 Kallar 마을공동체에 스며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 24시간 함께 하는 단원들을 알아가며, 서로 다른 4명의 단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연습, 함께여서 행복한 경험.